비평의 '렌즈'로 읽는 조선영화사

조선영화란 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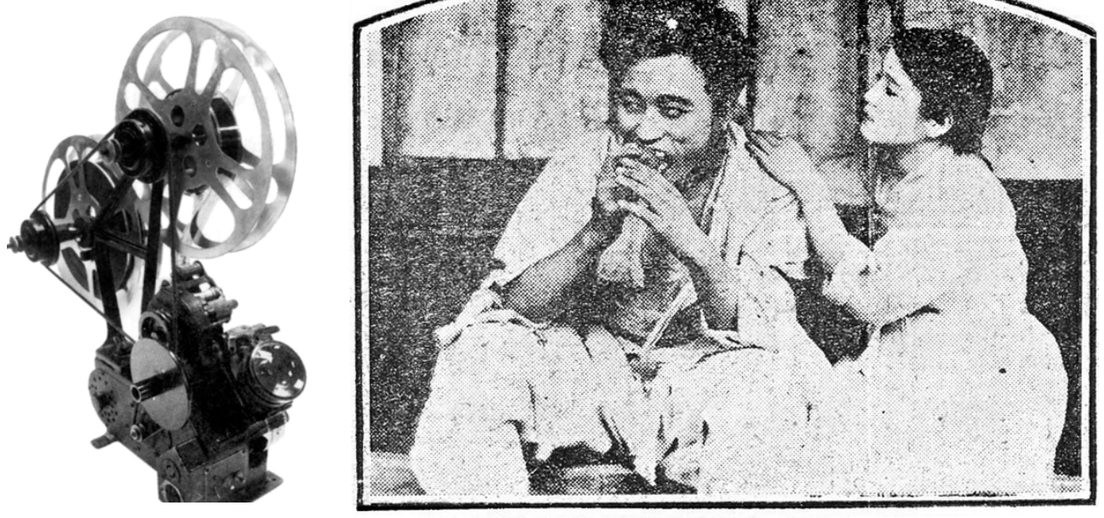
백문임 등 지음

1926년 10월 1일, 영화 한 편이 서울 단성사에서 개봉돼 일제 식민지 치하의 조선인들의 심금을 울렸다. 춘사 나운규(1902~ 1937)가 각본·주연·감독을 맡은 '아리랑'이었다.

카프(KAPF)를 주도한 시인이자 평론가 임화는 '아리랑'에 대해 "조선영화가 최초로 타자 의존에서 독립해본 성과이며, 또한 여러 가지의 조선영화 중 자립적인 영화정신이 농후한 조선영화"라고 비평했다.

최근 출간된 '조선영화란 하(何)오-근대 영화비평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발표된 비평과 담론으로 보는 조선영화사(史)이다. 백문임(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이화진(인하대 한국학연구소HK연구교수)·김상민·유승진(연세대 강사)이 함께 엮고 썼다. 이 책은 1910년대부터 해방 이전까지 조선영화를 둘러싸고 전개된 영화비평문을 엮은 해설서이자 자료집으로, "'20세기 총아'인 영화에 대해 식민지 조선에서 제출된 평론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최초의 작업"이다.

저자들은 조선영화사의 윤곽을 그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비평문 55편을 골라 초기영화, 변사, 사회주의 영화운동, 발성영화(Talkie), 전쟁과 국책(國策)영화 등 14개 주제를 구성했다. 임화, 심훈, 한설야, 채만식 등 당시 최고의 필력을 자랑하는 지식인들을 사로잡은 매체는 영화였다. 이들은 조선영화를 보고, 나름의 비평을 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주고받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춘사 나운규가 각본·주연·감독한 영화 '아리랑'(1926년작).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조선인들의 울분을 대변한 제1호 '국민영화'였다. 현재 영화 필름이 남아있지 않지만 영화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확고하다.

1923년 개봉된 '춘향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선 영화의 제작시대가 열렸다. 나운규는 '아리랑'을 제작하면서 "졸리고 하품 나지 않는 작품을 만들리라. 그러자면 쓰림이 있어야 되고 유머가 있어야 된다. 외국물 대작만 보던 눈에 빈약한 감을 없이 하려면 사람을 많이 출연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엑스트라 800명을 동원해 집단으로 춤추는 장면을 촬영했다.

무성영화인 '아리랑'이 흥행할 수 있었던 데는 변사의 역할이 컸다. 변사의 조선어 해설은 "극장이라는 공간이 민족을 상상하게 하는 경험의 장"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활동사진 변사는 "관람자로 하여금 능히 울게 하고, 능히 웃게 하고, 능히 분노하게 하고, 능히 쾌창(快暢)하게 하여, 사람의 정서를 울려 흥감케 하는 구변을 가진 자"(최찬식)였다.

조선 최초로 만들어진 유성영화 역시 '춘향전'(1935년)이었다. 이명우 감독은 "스튜디오의 방음 설비가 되지 않아서 멍석 1600여 매를 사다가 물을 축여 두겹으로 막아놓고 촬영을 했다"고 제작기에 썼다.

'활동사진영화 취체규칙'(1934년)과 '조선영화령'(1940년) 공포 등 일제의 영화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조선영화의 제작과 비평도 친일적으로 변질됐다. 일제는 영화를 '문화전(文化戰)의 탄환'으로 여겼다. 이 책에서 징병영화 '젊은 자태', '조선해협'(1943년) 등과 같은 친일영화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광주 초등학생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수업료'(1940년) 등 일제시대 영화를 곁들여 볼 수 있으면 좋을 듯 싶다.

〈창비·4만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아동문학과 전래동화는 '영혼의 성장 호르몬'

동화, 영혼의 성장

김혜연 지음

전래동화는 '아이들이나 보는 유치한 이야기'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화나 그림책 읽는 어른들도 늘고 있다.

전래동화는 위로와 함께 성장하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품고 있다. 동화가 주는 충고는 때로는 너무나 실용적이고 현실의 어두운 면을 꿰뚫어 보여주기도 한다. 현재에 안주하여서는 안 되며 무섭고 싫더라도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하고, 답답한 현실에 덤비고 싶더라도 힘을 기를 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 일러준다.

문학 전공자로 문학을 비롯, 대중문화 평론 등 다양한 글을 쓰고 있는 김혜연씨가 펴낸 '동화, 영혼의 성장'은 동화를 통해 어른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전해주는 책이다. 저자는 아동문학과 전래 동화가 '영혼의 성장 호르몬'이라고 말한다.

마을 도서관 대표이자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진행한 '동화와 함께하는 다문화 인권이야기' 강의 내용도 일부 실렸다.

저자는 동화 '빨간 모자'와 작품의 원형이 된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갖게 되는 성장의 불안과 희망에 대해 말한다.

또 애니메이션 '슈렉2'의 모티브가 된 '장화 신은 고양이'를 통해서는 신분 상승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이들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어른 뺨치는' 아첨과 속임수가 난무한다.

그밖에 알프스에 사는 하이디의 모습에서는 요즘 다문화 시대의 아이들 모습을 보고, '푸른모자'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준다.

많은 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새 엄마와 마녀가 등장하는 '신데렐라', '콩쥐팥쥐', '장화홍련전'을 통해서는 '가족'의 의미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채륜서·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내 마음 누가 이해해줄까?=위로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철학적 상담 교양서. 청소년의 고민을 세 가지 철학적 주제와 연결하여 다룬다. '존재와 의미'에서는 청소년기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자아에 관한 탐색을 살펴보고, '공동체와 관계'에서는 자신과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고민한다. '규범과 가치'에서는 규칙과 법 같은 일상적인 주제에서부터 종교와 철학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조언까지 제시한다. 〈평단·1만4800원〉

▲마이너스 금리의 경고=증권분석사 도쿠가츠 레이코의 책. 책은 '눈에 보이는 금리'를 결정하는 수면 아래의 금리세계를 보여준다. 채권 분야 애널리스트의 시각에서 일반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 금리'의 움직임을 낱낱이 알려준다. 세계적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과 낮은 성장률의 문제, 대대적인 양적완화 정책에도 해소되지 않는 경기침체의 원인까지 지금 벌어지는 경제현상을 뿌리부터 파고들어 설명한다. 〈다온북스·1만5000원〉

▲굿걸=평범한 고등학교 역사 교사였던 메리 쿠비카를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소설가로 만든 화제의 데뷔작. 섬세한 심리묘사와 치밀한 구성, 예측하기 어려운 반전으로 전 세계 독자들을 매료시킨 심리스릴러다. 시카고 명문가의 골칫거리인 자유로운 영혼의 막내딸 미아가 납치되었다가 몇 달 만에 돌아온다. 어머니와 형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미아는 그간의 기억을 모두 잃은 채 스스로를 클로이라 주장한다. 그녀가 무의식 아래로 숨겨버린 기억의 진실은 무엇인가.

〈레디셋고·1만4300원〉

▲빈 배처럼 텅 비어=삶과 사랑, 그리고 죽음을 누구보다 치열하고 독한 언어로 품어내는 시인 최승자. 2010년 오랜 침묵을 깨고 11년 만에 선보였던 '쓸쓸해서 머나먼'과 2011년 대산문학상, 지리산문학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묶어낸 '물 위에 씌어진'에 이은 여덟번째 시집이다. 매번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나'라는 '빈 감방'에서 탈출하려 안간힘을 써온 그의 일기가 92편의 시로 묶였다. 〈문학과지성사·8000원〉

▲고민 오프=일본 승려 구사나기 류슌의 책. 저자는 고민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그 중 자신의 고민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고민의 정체를 알면 괴로움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걸 알고 나면 모든 고민은 '반응'에 불구하다는 걸 알아차리게 된다.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감정도 행동도 생기지 않는다. 당연히 고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인연·1만2000원〉

어린이 책

▲벽=2016 황금도깨비상 수상작.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간을 색다르게 해석한다. 직선과 곡선, 노랑과 파랑만으로 이루어진 '벽'은 우리를 마술 같은 공간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책을 두 손에 펼쳐든 채로 좁혔다 넓혔다 하면, 그림 속 벽의 위치와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며 보는 재미까지 있다.

〈비룡소·1만1000원〉

▲아빠의 발 위에서=어린이가 사랑하는 작가, 이모토 요코의 '황제펭귄 가족 이야기'. 황제펭귄은 겨울에 알을 낳는다. 아빠는 4개월 동안 발 위에서 알을 따뜻하게 품는다. 극한의 추위에서도 아기를 지켜내는 황제펭귄 엄마 아빠의 지극한 사랑이 어린 독자들의 가슴에 뜨겁고 순수한 감동을 전해 줄 것이다.

〈북극곰·1만5000원〉

▲마음이 예뻐지는 동시, 따라 쓰는 동시=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봤거나 보게 될 우리 동시들과 입으로 따라 불렀던 재미있는 가사를 가진 동요들이 수록됐다. 동시는 연필로 따라 써도 되고, 색연필로 그림 그리듯 써도 된다. 쓰는 재미가 있다. 아이들의 감성을 누구보다 잘 그리는 동시 작가 이상교 선생님이 책을 엮고 그림을 그렸다. 〈어린이나무생각·1만2800원〉

▲아빠와 배트맨=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의 가치를 진한 감동으로 그려온 이병승 작가의 단편 동화집.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까칠한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따뜻한 가족애와 우정, 참된 용기라는 아름다운 화음을 길어 올린다.

〈북멘토·1만1000원〉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북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북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북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